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 예배
열왕기하 19:4-6
2025 년 10 월 12 일 오전 11 시

거짓된 영을 분별하라

< 주여 도우소서 >

오늘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에는 생명의 물도 있지만, 독이 된 물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의 환상’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는 말을 쉽게 듣지만, 정말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요일 4:1 상반절). 거짓된 영은 언제나 진리의 모양을 하고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며, 믿음을 흔들여 놓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인지,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영인지, 혹은 사탄이 위장한 영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랍사게도 그런 자였습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와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 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왕하 18:25). 랍사게는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영이 만들어낸 왜곡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랍사게의 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왕하 19:6). 랍사게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우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된 영을 분별하고,

참된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짓된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1. 두려움 속에 흔들린 믿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왕하 18:7). 히스기야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현대 히스기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 6 년에 앗수르에 의해 견고한 성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본 후입니다. “삼 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육년이었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구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왕하 18:10). 히스기야는 사마리아 성의 함락과 이스라엘 열지파가 앗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본 후에 앗수르에 대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앗수르 왕은 본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앗수르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 년에 앗수르의 새 왕인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십사년에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왕하 18:13).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였습니다. 이 때 유다 제 2 의 도시인 라기스도 점령되었습니다. 라기스가 점령되었다는 소식은 히스기야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40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주둔하고 있는 앗수르 왕 산헤립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앗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앗수르 왕이 곧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왕하 18:14).

거짓된 영을 분별하라(왕하 19:4-6)

히스기야는 산헤립에게 잘못했다고 짹짹 빌었습니다. 그리고 철군만 해주시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산헤립은 은 300 달란트와 금 30 달란트를 요구하였습니다. 산헤립이 요구한 은금의 양은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준을 훌쩍 넘기는 양입니다. 이는 유다 왕실의 1년 재정 전체와 맞먹습니다. 히스기야가 국고의 은금을 다 모아도 산헤립이 요구한 양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까지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왕하 18:15). 성전 곳간에 있는 은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입니다. 히스기야는 성물에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자 성전을 훼손하였습니다. “또 그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라”(왕하 18:16).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바친 성전의 금을 벗겨 앗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거룩한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세상에 바치면, 영혼의 빛이 어두워집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눈앞의 위협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동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산헤립이 은금을 받고 돌아갔을까요? 산헤립은 군대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앗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겔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왕하 18:17).

산헤립은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가 대규모의 기병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앗수르의 관직명입니다. 다르단은 총사령관, 랍사리스는 내관장, 랍사게는 술 맡은 관원장 또는 지방 총독입니다. 오늘 본문의 랍사게는 유다 말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사마리아 총독이었을 것입니다. 산헤립의 부하 장군들은 히스기야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써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썬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왕하 18:18).

2. 랍사게의 조롱과 거짓말

그러자 히스기야 왕의 신하 세 명이 산헤립의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산헤립의 신하 세 명과 히스기야의 신하 세 명이 윗못 수도 곁에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앗수르 측에서는 유다 말을 구사할 줄 아는 랍사게가 대표로 발언합니다. 랍사게는 매우 오만한 태도로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앗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이천 마리를 주리라”(왕하 18:23). 유다에 말을 탈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 2천 마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앗수르는 처음으로 말을 탄 궁수들을 전쟁에 투입하였습니다. 궁기병을 처음으로 운용한 나라가 바로 앗수르입니다. 앗수르 이전에는 사람이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오직 병거를 끄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앗수르의 기병을 처음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 충격은 잉카 제국이 스페인 기병대와 마주쳤을 때 받은 충격보다는 적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인 기병이 탄 말은 잉카인들에게 “사람과 짐승이 하나로 합쳐진 괴물”로 보였습니다. 잉카인들이 받은 충격보다는 덜하지만, 앗수르의 기병을 본 유다 백성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말은 병거를 끄는 동물입니다. 사람이 말을 탈 뿐 아니라 말 위에서 화살을 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앗수르는 말을 탈 줄 아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말 탈 사람 한 명에 말 2천 마리를 주겠다고 히스기야를 조롱한 것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하찮은 기병 한 명도 물리칠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왕하 18:24). 나아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 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왕하 18:25).

람사게는 히스기야를 조롱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랍사게에게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랍사게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3 계명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출 20:7 상반절)를 범하는 대죄입니다. 랍사게는 은금을 받고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앗수르 왕 산헤립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거짓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랍사게의 말을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람사게가 그의 주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왕하 19:4).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6 절). 하나님께서도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랍사게의 말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죄입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다고 함부로 말합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를 맡기는 일조차도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종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세례 요한에게 하신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마 11:13).

3. 성경과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히 1:1-2 상반절). 따라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랍사게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현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물론 사도행전에는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행 8:29).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행 10:19).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려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행 13:2).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내가 불려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 2:7, 11, 17, 29; 3:6, 13, 22).

이같이 성령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교회가 함께 분별했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성령은 고립된 개인의 영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 거짓된 영은 혼자 듣는 계시로 사람을 분리시키지만, 성령님은 말씀과 교회로 성도를 연합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 때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회의 때에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께 여쭙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행 15:2). 그래서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행 15:6).

그리고 마침내 할례를 비롯해 모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회의 결의 사항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행 15:28). 즉, 성령님께서 교회 회의를 통하여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교회 예배와 교회 회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개인 신비 체험’을 통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영은 언제나 진리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랍사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을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영들이 “성령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로 사람들을 혼란케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은 오직 말씀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교회 안에서 참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li Deo Gloria >